쓰러진 동료 심폐소생술 시행 생명 구해 '훈훈'

박진호 담양동초등학교 교사
응급처치로 후유증 없이 회복
"심폐소생술 교육 중요성 입증"

지역 한 소프트테니스장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동료를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살린 교사가 화제다.

지난 6일 담양소프트테니스장에서 정구를 하던 정 모씨(64)가 운동이 끝나고 의자에 앉아 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호흡과 맥박이 멎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운동하던 동료 박진호(57·담양동초등학교 교사)씨가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박 교사는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10여 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호흡과 맥박을 일정 정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환자가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동료 김범식씨는 즉시 119에 구조 요청을 했고 또 다른 동료는 구급대원과 통화하며 상황을 전달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 도착 후 AED(자동심장충격기)와 약물치료를 통해 정씨를 안정시켰고 의식을 되찾게 했다.

박진호 교사 등 동료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며 "안전한 세상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동료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박진호(왼쪽) 교사와 김범식씨.

조선대병원, 환자경험 관리 교육

조선대병원은 환자 접점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환자경험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8회에 걸쳐 오는 11월 18일까지 병원 2층 하종현홀에서 현장강의와 온라인강의로 진행된다.

환자 접점 부서 서비스 품질 관리를 통한 환자 응대 역량 강화 및 조선대병원만의 차별화된 환자중심 의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고객만족팀 주관으로 진행된 교육은 웰인사이트 서효정 대표를 초청해 △환자경험, 환자경험리더의 주요 역할 △심평원 환자경험평가 최신 동향 △부서별 매뉴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조용진 고객만족팀장은 "고객 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환자와 접점부서 직원 간에 소통과 공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법무공단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 협의회(회장 김창승)가 지난 12일 광주시 북구 장어명가청산 북구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 기반 마련과 복지 향상 등에 활용된다. 'THE 안전한 대한민국 후원의 밤' 행사 추진도 논의했으며 올 상반기 법무보호대상자 웨딩촬영 지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가구 위문행사를 열 예정이다.

김창승 협의회장은 "지원금이 법무보호대상자 자립과 사회복귀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철 소장은 "법무보호대상자 재범 방지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한전·순천시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순천지사·순천전력지사)는 최근 순천 아랫장에서 순천시 산림자원과 및 산불진화대원들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 전국적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예방 대응 강화와 시민의 산불 예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5일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순천 아랫장에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시장 방문객들에게 산불 예방 홍보물품과 안내문을 배부하며 산불 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산불 발생 즉시 신고를 강조하고 산불로 인한 주요 처벌 사례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설명하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한병준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림청이나 소방서에 즉시 연락하고, 송전철탑·전주 인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한전(국번없이 123)으로도 연락하기 바란다"며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조기대응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산불 예방에 늘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농협광주본부 '찬찬찬 밑반찬' 나눔 봉사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와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회장 황금숙)는 13일 삼도농협(조합장 임문채) 저온저장고에서 지역 홀몸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찬찬찬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농가주부모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삼도농협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회원 30명이 참여해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지역 내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 등 200여 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현호 본부장은 "이른 아침부터 밑반찬 나눔 봉사에 참여해주신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삼도농협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가주부모임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연수 기자

조선대 교육방송국, 개국 50주년 기념행사

조선대학교 교육방송국(CUEB)이 개국 50주년을 맞아 최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대연회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반세기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13일 조선대에 따르면 '함께한 50년, On Air CUEB'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제열 부총장, 역대 국원 선후배와 가족, 지역 명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영상 상영 △축사 및 기념사 △대학 언론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한 주제발표 △자유토론 등 순으로 이어졌다.

조선대 교육방송국은 1975년 5월 19일 호출부호 CUEB로 첫 전파를 송출한 이후 '자유의 기수, 정의의 젖줄, 진리의 샘터'라는 국훈 아래 대학 언론의 창달과 건전한 학풍 조성, 대학인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며 학내 공론장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아나운서부, 제작부, 기술부로 구성된 교육방송국은 현재 22명의 국원이 오디오와 영상 방송을 제작·송출하고 있으며, 1978년 '서석골의 합창'을 시작으로 현재 '둘셋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해왔다. 지난 2017년부터는 교내 장미주간 기간 중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하며 학내외 구성원과의 소통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기존 라디오 방송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튜브, SNS 등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학우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전제열 부총장은 "지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참된 젊음의 목소리를 전하는 대학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신세계, 소아암 환아 1천만원 기부

광주신세계는 13일 백혈병소아암 환아 가족 후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 최영준 지회장,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광주신세계는 전달식에서 후원금 1,000만원과 헌혈증서 100장을 기부했다. 후원금과 헌혈증서는 취약계층 소아암 환아 가족들에게 전달돼 수혈비용 일부를 면제 받는 등 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광주신세계는 투병 중인 환아와 가족들을 돕고자 지난 2020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까지 총 3,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백혈병 등으로 고통 받는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후원금과 헌혈증서를 기부하게 됐다"며 "환아 가족들이 하루 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초록우산 광주, '초록우산 아이리더' 발대식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JS웨딩컨벤션 크리스탈홀에서 초록우산 광주 아이리더 40명과 아동보호자, 유영태 광주후원회장을 포함한 광주지역 후원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록우산 아이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

동강대, 어학당 연수생 대상 의료봉사

동강대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의 건강한 유학생활을 위해 무료 의료 서비스를 펼쳤다.

13일 동강대에 따르면 동강대 국제교류원은 지난 10일 교내 교수연구동 1층 글로벌존에서 한국어학당 연수생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동강대 간호학과 의료봉사 동아리 '활기찬(지도교수 국세란)'의 주관으로 재학생 50여명과 교직원을 비롯해 안과, 치과, 내과, 외과 등 의사 6명과 간호사 2명, 베트남어 통역 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동강대 한국어학당 학생들에게 내과, 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등의 무료 진료와 함께 약 처방과 간식을 지원했다.

특히 안과 진료 후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교내 안경점에서 무료로 안경을 제작해 나눠줬다.

동강대는 지난해에도 브릿지의료인회와 협업해 어학당 연수생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허숙 국제교류원장은 "어학 연수생들이 타국에서도 의료 복지 혜택에 소외되지 않고 '동강대 학생'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유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